

6개地域에 天敵 移殖

솔잎혹파리 먹좀벌 600萬마리

山林廳. 80年度엔 全國 8個地域 확대 실시

우리나라 林産資源保護를 위한 虫害防除事業에 生物學的 防除方法이 처음으로 擴大實施되어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山林廳은 藥劑防除 一邊到로 推進해 온 솔잎혹파리 防除事業을 올해부터 天敵 솔잎혹파리 먹좀벌을 防除事業에 直接 活用키로 했다.

우리나라 소나무 식재면적은 약 300萬 ha이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 솔잎혹파리가 처음 발견된 것은 무려 50年前인 1929年の 일이다.

그러나 솔잎기부에 혹을 만들어 생활하는 特性을 가진 이 害虫은 藥劑 살포만으로는 完全驅除가 되지 않고 있다.

왕성한 繁殖力을 가진 이 害虫은 지금 우리나라 소나무식재면적의 약 10%에 달하는 30萬ha에 번져 있다는 당국의 추산이다.

솔잎혹파리 먹좀벌은 이 무서운 害虫을 먹고 사는 天敵으로 1962年 처음으로 發見되었다.

현재 확인된 분포지역은 全南木浦市一圓, 忠北 단양, 全南 求禮, 慶南 釜山, 서울市 一圓 등이라고 한다.

이 솔잎혹파리먹좀벌은 幼虫期를 害虫인 솔잎혹파리 유충의 몸속에서 지낸다.

성충은 6월 중순부터 7月 중순에 羽化하여 나오며 크기는 1.5mm 내외로 매우 작은 벌이다.

羽化한 成虫이 솔잎 사이에 있는 솔잎혹파리 유충에 産卵을 하며 이 알은 寄生體內에서 자란다는 것.

이듬해 봄이 되면 솔잎혹파리유충은 죽어 접테기만 남고 이 寄生蜂은 20餘日의 번데기 기간을 지나서 솔잎혹파리 유충의 가죽을 뚫고 나온다는 것이다.

山林廳은 이 天敵을 78년부터 산하 6個林業試



◇ 사진 左는 솔잎혹파리먹좀벌, 右는 솔잎혹파리를 잡아 먹고 나오는 솔잎혹파리먹좀벌

驗場을 通하여 飼育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示範的이지만 實際 活用하게 된 것이다.

서울, 京畿, 江原, 慶北, 全北, 忠南 등 6個地域의 試驗場에서 飼育한 成虫 6百萬 마리를 6個地域의 松林 1ha에 2萬 마리씩 2百ha에 移殖하여 그 效果를 實測키로 한 이 生物學的 害虫防除事業은 80년에는 더욱 擴大 實施할 計劃이라고 한다.

우선 成虫飼育 規模를 大副增大시켜 1個機關當 4百萬 마리(도합 2,400萬 마리)로 定하고 移殖地域도 6個地域에서 8個地域으로 擴大시킬 方針이다.

結果는 두고봐야 알겠으나 天敵을 利用한 虫害防除의 追求는 매우 바람직 하다는 것이 衆論이다.

우선 藥劑로 인한 自然生態系의 훼손을 예방하고 藥劑로 언저 못하는 效果를 거두는 등 一石二鳥의 成果를 거둘 수 있는 길로서 期待 또 한 크다고 하겠다. <編輯部>